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연구

강희숙*

|| 차례 ||

- I. 머리말
- II. 오류 분석 가설과 오류 유형
- III.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실태 분석
- IV. 맞춤법 오류와 한국어 교재 구성의 방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오류의 양상을 기술하고, 그러한 오류의 수정을 위한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 구성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류 분석 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에서 가정하고 있는 오류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연수생들이 보이는 맞춤법 오류의 양상을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것과 목표어인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는 음소 체계 및 음절 구조 등 발음에서 가능한 학습자의 오류가 고스란히 맞춤법의 오류로 반영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는 조사의 체계 및 용법에 대한 과잉 일반화,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규칙화 혹은 단순화, 어문 규정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등이 요인이 되어 오류가 나타남을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는 모국어 학습자의 오류와 전혀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예측 가능한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그러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류의 화석화를 막기 위한 교재의 구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 한국어 학습자, 맞춤법, 오류, 오류 수정, 모국어, 간섭, 목표어, 화석화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오류의 양상을 기술하고, 그러한 오류의 수정을 위한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 구성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양상에 대한 접근은 연구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 혹은 중국어가 제2언어로 사용되는 이중언어 사용 환경에서 성장한 재미 교포나 재중 교포들에 대한 연구(김미옥 2001, Kim 2002, 이동은 2007)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려는 일반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소영 2003)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이소영(2003)이다. 이 연구는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법 오류를 첨가, 누락, 대치 오류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인데, 오류의 양상을 학습자의 언어권과 급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연수생들의 글쓰기 자료¹⁾에서 나타난 맞춤법 오류를 그 유형별로 관찰·분석하되, 이른바 오류 분석 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에 따라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기술한 다음, 한국어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교재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두기로 하겠다.

1) 연구 대상 유학생 수는 초급 27명, 중급 63명, 고급 10명 등 모두 100명이며, 연구 자료는 2008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작성된 자기소개서, 작문 과제, 중간·기말 고사 답안지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 가운데 맞춤법 오류를 포함하는 문장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계량화하기보다는 오류의 유형에 따라 분류·분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II. 오류 분석 가설과 오류 유형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오류 분석 가설은 모국어가 부정적으로 전이되어 외국어 학습을 방해하는 면만을 연구함으로써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던 이른바 대조 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에 대한 가지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오류 분석 가설은 모든 가능한 원천에 오류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외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오류의 발생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 성과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공히 상당히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오류 발생의 원인

연구 성과	오류 발생의 원인	비고
Richard (1971)	① 간접 ② 언어 내적 오류 ③ 발달 오류	
Selinker (1974)	① 모국어 ② 교육과정 ③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 ④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 ⑤ 목표어 규칙의 과잉 일반화	
Corder (1974)	① 언어 간 전이 ② 언어 내적 전이 ③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것	
Kleppin (1998)	① 모국어 혹은 여타 언어/외국어의 영향 ② 외국어 자체 내의 어떤 요소의 영향 ③ 의사소통 전략의 영향 ④ 학습전략의 영향 ⑤ 외국어 수업의 어떤 요소의 영향 ⑥ 개인적인 요소의 영향 ⑦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영향	②는 과잉일반화, 규칙화, 단순화 등으로 구분.

조철현 외(2002)	① 모국어 ② 학습과정 ③ 교과서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방법 ④ 외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학습자의 태도 ⑤ 목표언어 규칙의 과잉 적용	
이정희 (2003)	① 모국어 ② 목표어 규칙의 확대 적용 ③ 교육과정	③은 교재, 교사 등이 미치는 영향을 말함.

이상에서 보듯이, 오류 발생의 원인은 적게는 세 가지에서부터 많게는 일곱 가지로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관련이 있는 요소들끼리 묶어 좀 더 일반화해 보면,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 목표어, 학습 환경 등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다.²⁾

학습자의 모국어는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일컬어 모국어의 ‘간섭’(interference)이라고 한다. 간섭은 모국어의 체계나 특성이 목표어에 반영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모국어에 없는 요소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를 배제적 간섭(preclusive interference), 모국어에 있는 어떤 요소로 인해 목표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일컬어 침입적 간섭(intrusive interference)이라고 한다.

한편, 목표어 자체가 오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외국어 학습자의 오류가 모국어의 간섭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어의 규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을 토대로 하자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언어 내적 오류, 언어 내적 전이, 외국어 자체 내의 어떤 요소의 영향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Dulay & Burt(1974)에 따르면, 모국어에 의한 오류율은 전체 오류의 3%밖에 되지 않는 반면, 목표어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82%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

2) 이와 같은 구분은 결과적으로 Corder(1974)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적은 언어 간 전이 혹은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보다는 언어 내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학습자 언어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Kleppin(1998)에서는 목표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과잉 일반화, 규칙화, 단순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잉 일반화란 어떤 범주 또는 규칙을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 현상에까지 확대시키거나 규칙이 복잡하고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태만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한국어의 조사는 경우에 따라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교체형, 곧 이형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태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의 교체에 비추어 접속조사 ‘와/과’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하는 예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규칙화에 의한 오류란 비규칙적인 현상을 규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불규칙 활용 형태를 규칙 활용을 하는 것으로 잘못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³⁾ 마지막으로, 단순화란 복잡한 굴절 현상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화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복문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문만 사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세 번째 원인으로는 학습 환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재, 교수법 등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이란 어떤 교육기관의 학습 프로그램 전체를 가리키거나 하나의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실재를 규정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이은희 1998:123).⁴⁾ 이와 같은 의미의 교육과정은 일정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3) 이와 같은 규칙화에 의한 오류는 과잉 일반화와는 달리 목표어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 규칙을 부분적으로만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정희(2003:95)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완전 적용’에 의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이은희(1998:123)에 의하면, 전자, 곧 어떤 교육기관의 학습 프로그램 전체는 넓은

전체적인 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계획 및 실제 교육이 교육과정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만일 그러한 전체적인 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등의 전 영역이 체계화되지 못하게 되며, 바로 이것 때문에 학습자의 오류가 야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의사소통적 접근 방법에 따른 의미-기능 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되면서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문법 형태가 제시되거나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어휘가 제시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이 비문법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가장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교재라고 할 때, 만일 교재 내용 자체 또는 교재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언어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학습자들에게 전이됨으로써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아무런 전략 혹은 장치도 교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오류의 화석화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오류의 양상은 그 원인과 관련,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에서 발견되는 오류의 양상을 주로 모국어인 중국어의 간섭에 의한 것과 목표어인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 두 가지와 관련지어 살펴본 다음, 오류의 또 다른 요인 가운데 하나인 학습 환경과 관련해서는 오류의 수정을 위한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을 모색해 보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의미의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후자, 곧 하나의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실재를 규정해 놓은 것은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실태 분석

1. 중국어의 간섭에 의한 맞춤법 오류

중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 나타나는 맞춤법 오류 가운데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는 중국어의 음운 체계나 음절 구조 등이 목표어인 한국어와 차이가 나는 데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다음은 자음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류의 예이다.

- (1) 가. *찰(잘) 부탁드립니다. <초급>
 저는 *태학교(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초급>
 부모님도 *친첼해요(친절해요). <초급>
 *최송합니다(죄송합니다). <중급>
 나. 제 희망은 *통역사(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중급>
 성형수술을 해도 *괜찮습니다(괜찮습니다). <고급>
- (2) 가. 이 세 *까지(가지)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고급>
 나. 어마, *아바(아빠), 형……. 존댓말을 했어요. <중급>
 날마다 옷을 *바꾸는(바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고급>
 *도(또) 통역사하면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고급>

위의 예들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장애음 체계의 차이와 관련된 오류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어의 장애음은 유기음과 무기음의 대립만을 보여주는 데 반하여,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경음/유기음’이라는 삼지적 대립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언어적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평음과 유기음, 평음과 경음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장향실 2002; 추이진단 2002, 2004; 한성우 2008), (1), (2)의 예들은 그러한 언어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1)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과 유기

음을, (2)는 평음과 경음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그 경향에 있어 약간의 특징적인 언어적 사실을 보여주는데, 평음을 유기음으로 반영하는 오류가 주로 초급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그것이다. 장향실(2002:215)에서도 유기음과 평음의 구별은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부딪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언어적 사실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음 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국인 학습자의 또 다른 오류는 유음의 체계 및 분포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한국어에는 유음 음소가 /ㄹ/ 하나 뿐인 데 반해, 중국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유음, 곧 설측음 /l/과 설전음 /ɭ/이 있다. 문제는 한국어의 유음 /ㄹ/은 어중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탄설음 [ɭ]로, 음절초와 음절말 위치에서는 설측음 [l]로 실현되는 것과는 달리, 중국어의 유음은 둘 다 음절초의 위치에만 분포함으로써, 음절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한국어의 설측음 [l], 특히 [l]이 겹쳐서 실현되는 [ll]의 발음을 습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자주 범하고 있다.

- (3) ㄱ. 서름 이라고 *부러(불러) 주세요. <초급>
 수업이 못해서 숙제가 무엇을 *몰았어요. <중급>
 시간 가는 줄 *모랐어요(몰랐어요). <중급>
 그 나무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랐습니다(몰랐습니다). <고급>
 ㄴ. 눈이 내려서 친구와 같이 밖에 *놀어(놀러) 갔습니다. <중급>

위의 예들 가운데 (3ㄱ)은 이른바 /르/ 불규칙 활용형들이고 (3ㄴ)은 어간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 음이 /ㄹ/인 경우로서, 결과적으로 기저의 유음 /ㄹ/가 설측음 [ll]로 실현되어야 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ㄹ/의 음가에

대한 인식이 쉽지 않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두 경우 모두 ‘ㄹ’로 표기하지 못하고, ‘ㄷ’로만 표기하는 오류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발음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음운론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또 다른 차이는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 체계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등 7개인 데 반하여, 중국어의 경우는 /n, ŋ/ 두 개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절말 자음 체계의 차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국인 학습자의 표기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중국어에 없는 음절말 자음을 탈락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자음으로 대치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 (4) 가. 그 추억은 *한구(한국)에 공부하느라고 힘들 때 기쁨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급>
매년 눈이 내리면 그 친구 그 웃음하고 그 눈사람 다 *생가나요(생각
나요). <중급>
나. 저는 한국에서 *미수(미술)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초급>
중국으로 *사왔습니다(살았습니다). <중급>
음식 가운데 김치와 *부고기(불고기) 유면해요. <중급>
ㄷ. 저는 조선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니다(공부합니다). <초급>
*어마(엄마), 아바, 형……. 존댓말을 했어요. <중급>
(5) 중국 강서성 남창에 *이느(있는) 강서 사대에서 왔습니다. <초급>
*예날에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데 <고급>
(6) 가. 우리 *일합이일(일박이일) 동안 놀았습니다. <고급>
12시 후에 *친첵(친척)하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급>
나. 아, *간빠(깜빡) 잊어버렸어요. <고급>
*신지어(심지어) 시키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고급>
(7) 여자들이 사회 활동을 *집척(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급>

위의 예들 가운데 (4), (5)는 음절말 자음을 탈락시킴으로써, (6), (7)은 다

른 자음으로 대치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의 예이다. 음절말 자음의 탈락은 장애음 /ㄱ/(4ㄱ)의 경우를 비롯하여 공명음 /ㄹ/(4ㄹ), /ㅁ/(4ㅁ), /ㄴ/(5)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5)의 경우에는 중국어의 음절말 자음으로 실현이 가능한 /ㄴ/까지도 탈락시키고 있어 오류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대치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의 유형은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 하나는 (6)의 예에서 보듯이, 장애음 /ㄱ/(6ㄱ)나 공명음 /ㅁ/(6ㅁ)를 다른 자음으로 대치함으로써 야기된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7)의 예에서 보듯이,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발음을 바꾸는 일종의 음위전환(metathesis)의 방식에 의해 자음을 대치함으로써 야기된 오류이다.

음절말 자음의 대치가 어떠한 원칙 혹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단언하기 쉽지는 않지만, (6ㄴ)의 경우,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 /ㅁ/를 중국어에서 가능한 /ㄴ/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국어의 음절말 자음 체계와 관련시키거나, 아니면 일정한 조음상의 동기에 의해 그와 같은 대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음 예들은 중국어의 음절말 자음으로 가능한 /ㄴ/, /ㅇ/을 다른 공명자음으로 대치하여 표기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의 예이다.

(8) ㄱ. 가족들이 같이 *송평(송편)을 먹읍니다. <중급>

*어평(어편) 일은 거의 성공하면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고급>

ㄴ. 같은 계절이지만 *다름(다른) 기분이 있어요. <중급>

대부분 여자들이 *보신탕(보신탕) 안 먹다. <고급>

ㄷ. 이때 집안에는 *한복한(행복한) 분위기를 가득 차 있다. <고급>

음식 가운데 김치와 부고기 *유면해요(유명해요). <중급>

*냉방기(냉방기)가 때로는 고장 나서 더욱 추웠어요. <중급>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8ㄱ)에서는 /ㄴ/을 ‘ㅇ’으로, (8ㄴ)에서는 /ㄴ/을 ‘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8ㄷ)에서는 /ㅇ/을 ‘ㄴ’으로 대치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나 /ㅇ/은 중국어의 음절 말 자음 체계에 속하는 음이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익숙한 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과 같은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 목표어인 한국어의 음절말음을 정확히 구별하고, 또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⁵⁾

중국어와 한국어 간에 나타나는 음소 체계 및 음가의 차이는 모음의 경우에도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선 지적할 만한 사실로는 중국어의 경우는 후설모음 /o/, /u/가 혀의 높낮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은 까닭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ㄴ/와 /ㄷ/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⁶⁾ 다음은 그와 같은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표기의 오류이다.

(9) ㄱ. *무두(모두) 끝나면 한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초급>

저는 중국 거황 *공무원(공무원)입니다. <초급>

한국에서 *준대말(준대말) 해야 해요. <중급>

중국 *유리(요리) 저는 너무 좋아요. <중급>

5) 이러한 의미에서 (8)과 같은 표기의 오류는 일종의 과도수정(hyper-corre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6ㄴ)에 나타난 표기의 대치는 중국어의 음절구조상 불가능한 자음인 /ㄱ/에 대한 대체 표기인 데 반하여, (8)에서는 중국어의 음절말음으로 실현이 가능한 /ㄴ/과 /ㅇ/을 각각 ‘ㅇ, ㄱ, ㄴ’ 등으로 대치하고 있는바, 이러한 양상은 화자의 언어적 유추에 기인한 과도수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6) 이와 같은 차이는 중국어의 모음 /o/와 한국어의 모음 /ㅓ/가 음가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중국어의 /o/는 한국어의 /ㅓ/보다 훨씬 원순성이 적고 혀 위치도 낮은 편이다. 또한 중국어의 /o/는 파열음 /b/[p], /p/[p'], 비음 /m/[m], 마찰음 /f/[f] 뒤에만 연결된다는 제약이 있다(추이진단 2002:327).

- ㄴ. 방학 때 눈사람 만들던 추억을 *떠올립니다(떠올립니다). <중급>
수술 후 *만족(만족) 못해서 계속 재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고급>
설을 *새로운(새로운) 1년이 시작한 첫날입니다. <고급>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많지만 통역사들 *부족(부족)합니다. <고급>
- (10) ㄱ. 저는 *중국(중국) 사람입니다. <초급>
*오리(우리) 중국의 전통 차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급>
만두는 *우리나라(우리나라)에서 절 중요한 음식입니다. <중급>
우리나라에는 *요면한(유명한) 차 많이 있습니다. <중급>
아버지와 같이 *북경(북경)부터 청도까지의 여행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급>
- ㄴ. 전통 음악 *종료(종류)도 많아요. <중급>
제주도 갔을 때 돌 *박물관(박물관)에서 많은 이상한 형상의 돌을 봤습니다. <고급>

위의 예들 가운데 (9)는 모음 /ɿ/를 ‘ㅈ’로, (10)은 모음 /ɿ/를 ‘ㄱ’로 반영하여 표기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의 예이다. 이와 같은 표기의 오류는 어두 위치(9ㄱ, 10ㄱ)에서는 물론 비어두 위치(9ㄴ, 10ㄴ)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급에서는 물론 중·고급 단계에서까지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기의 오류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하여 준다.

중국어와 한국어 모음 체계상의 또 다른 차이로는 한국어에 있는 전설의 비원순모음 /ɿ/, ɨ/가 중국어에는 없어(추이진단 2002: 324-325),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 두 모음을 제 음가대로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⁷⁾ 그 결과, 표기에서도 두 모음의 혼동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7) 더구나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종의 진행 중인 언어 변화 가운데 하나인 모음 /ɿ/, ɨ/의 혼동은 /ɿ/와 /ɨ/가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중화음 [E]로 실현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이는 /ɿ/, ɨ/의 혼동은 한국인 모국

- (11) ㄱ. *그런대(그런데) 지금 한국말 잘 못합니다. <초급>
 *제가(제가) 취미는 많습니다. <초급>
 *애(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여자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급>
 ㄴ. 중국 문화를 정말 *재미있어요(재미있어요). <중급>
 민속음악이 *재미있어요. <중급>

위의 예들 가운데 (11 ㄱ)은 /ㄱ/을 ‘ㄱ’로, (11 ㄴ)에서는 /ㄱ/을 ‘ㄴ’로 대체하여 표기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이다. 발음의 혼동이 표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한국어의 모음 체계에는 있지만, 중국어의 모음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음의 또 다른 예로는 /ㄱ/, /ㄴ/ 이외에도 /ㅡ/, /ㅣ/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ㅣ/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은 모음이다(장향실 2002:219). 그 결과, 모음 /ㅣ/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모음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이 그 예이다.

- (12) ㄱ. 어머니께서 *가중(가정)주부입니다. <초급>
 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노무(너무) 좋아해요. <중급>
 ㄷ. 특히 *여상(여성)들이 더 예쁘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형이 점점 늘어나고 상황 되었습니다. <고급>
 그건 우리의 몸에 대해 나쁜 *양향(영향)을 줍니다. <고급>

위의 예들을 검토해 보면 /ㅣ/는 ‘ㅓ’(12 ㄱ), ‘ㅗ’(12 ㄴ), ‘ㅓ’(12 ㄷ) 등의 모음으로 각각 대체되어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인지가 결코 쉽지 않음을 방증해 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맞춤법 오류는 상당 부분 목표어인 한국어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모국어의 간섭이 그

어 학습자들의 오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두 언어의 음운 체계나 음절 구조를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동안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인 한국어의 대조 분석에 의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은 주로 발음 교육의 차원에서만 접근되어 온 측면이 있다(이주행 2002, 추이진단 2002, 2004, 장향실 2002, 한성우 2008 등).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는 발음에서 가능한 학습자들의 오류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맞춤법 차원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오류 역시 말하기와 같은 음성언어 차원과 마찬가지로 두 언어 간의 차이에 대한 교수자의 체계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점검과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교수·학습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맞춤법 오류

한국어의 특징이 요인이 되어 나타나는 맞춤법 오류는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에서부터 음운·형태·문법 등 다양한 층위의 언어적 특징이나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기의 원칙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유형론적 측면에서 첨가어의 특징을 보이는 언어로서,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태소들이 문법적 기능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교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어순의 차이에 의해서 문법적 기능이 달라지는 고립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의 첨가 혹은 교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그와 같은 사실과 관련되는 오류의 예이다.

- (13) 가. 왜냐하면 반대한 원인가(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
 나. 저는 한국의 만화 영화을(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초급>
 그래서 남자들이 스트레스을(를) 많이 받습니다. <고급>
 우리 학교에서 제주도을(를) 갔습니다. <고급>
 다. 제 동생는(은) 학생이에요. <초급>
- (14) 가. 숙제가(를) 모릅니다. <중급>
 나. 한국어 공부를(는) 재미있어요. <초급>
 한국어를(는) 재미있습니다. <초급>
 제 고향의 겨울을(은) 많이 춥니다. <중급>
 이때 집안에는 한복한 분위기를(로) 가득 차 있다. <고급>
 성형수술을(의)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합니다. <고급>
 적잖은 고민거리가 나와서 생활은 절망을(에) 빠졌다. <고급>
 다. 중국의 전통 음악의(은) 오페라입니다. <중급>
 다. 중국으로(에서) 사왔습니다 <중급>

위의 예들 가운데 (13)은 한국어의 일부 조사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이/가, 을/를, 은/는’ 등으로 교체된다는 언어적 사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4)는 조사의 체계 혹은 용법 자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잉 일반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에서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조사의 교체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주격 조사 ‘이’ 대신 ‘가’를(13가), 목적격 조사 ‘를’ 대신 ‘을’을(13나), 보조사 ‘은’ 대신 ‘는’을(13다) 과잉 일반화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14)에서는 목적격 조사 ‘를’을 ‘가’로(14가), 보조사 ‘은/는’을 각각 목적격 조사 ‘을/를’(14나), ‘관형격 조사 ‘의’(14다)로, 부사격 조사 ‘에서’를 ‘으로’로 대치하는 등(14다)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류의 양상을 좀 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화해 보면, 상당히 흥미 있는 언어적 사실이 확인된다. 그것은 주격 조사 ‘이/가’

나 목적격 조사 ‘을/를’로써 여타의 격조사 기능을 대치하는 현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은 중급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서 확인된 조사 대치의 사례들이다.

- (15) ㄱ. 얼굴**이**(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이**(을) 볼 수 있고
수업**이**(을) 안 해서 숙제**가**(를) 몰라요.
그래도 저는 매우 음식**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밤**이**(을) 먹는 사람이 일생 행복을 대표합니다.
눈**이**(을) 보자 한 친구와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났어요.
한국사람**이**(은) 꿈**이**(에) 돼지 좋아해요.
그래서 내일은 수업**이**(에) 못 갈 것 같아요.
배우는 얼굴**이**(에) 화장합니다.
- ㄴ. 김치**을**(가) 맛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문화**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이) 많이 있어요.
중국사람**을**(은) 친정해요.
경극의 옷**을**(은) 너무 예뻐요.
경극**을**(은) 재미 많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15ㄱ)은 주격 조사 ‘이/가’가 목적격은 물론 보조사 ‘은’ 및 부사격 조사 ‘에’의 기능을 대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 (15ㄴ)은 목적격 조사 ‘을/를’이 주격 조사 ‘이/가’나 보조사 ‘은’의 기능을 대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조사의 대치가 (14)의 예에서처럼 무질서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조사 체계 및 용법을 익히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 맨 먼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의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 그러한 격 표지를 다른 격의 자리에까지 과잉 일반화함으로써 오류가 야기되

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첨가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한국어에서는 일정한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 또는 어미가 자동적으로 혹은 비자동적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음은 그러한 규칙에 대한 학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난 오류의 예이다.

(16) ㄱ. 제 부모님께서는 중국에 *살습니다(삽니다). <초급>

ㄴ. 오늘 배가 *아프아서(아파서) 수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중급>

위의 예들 가운데 (16ㄱ)은 어간말음 /ㄹ/을 탈락시켜야 하는 환경에서 탈락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오류의 예라면, (16ㄴ)은 이른바 /으/ 탈락 규칙을 적용해야 할 환경에서 어간말음 /으/를 탈락시키지 않은 채 유지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Kleppin(1998)의 분류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현상을 규칙화하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불규칙적인 현상을 규칙화함으로써 나타난 오류 외에도 복잡한 굴절 현상을 단순화함으로써 나타난 오류 또한 적지 않은데 다음이 그 예이다.

(17) ㄱ. 중국음식을 *먹면(먹으면) 건강합니다. <중급>

제 고향의 겨울을 많이 *춡니다(춥습니다). <중급>

ㄴ. 이번 겨울방학 때 저는 또 눈이 *기다리져요(기다려져요). <중급>

더 *예쁘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형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되었습니다. <고급>

ㄷ. 눈이 *와면(오면) 친구와 같이 눈싸움을 하느라고 눈사람을 만들어요. <중급>

위의 예들 가운데 (17ㄱ)은 어간말음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어미를 각

각 ‘-으면’, ‘-습니다’ 등으로 교체해야 하는 환경에서 ‘-면’, ‘-니다’를 연결시킴으로써 어미의 목록을 단순화한 예라고 한다면, (17ㄴ)은 어간 뒤에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어야 하는 환경에서 ‘-어’를 탈락시킴으로써 활용을 단순화한 예이다. 또한, (17ㄷ)은 ‘오-’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인 ‘와’를 어간으로 오분석함으로써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교체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맞춤법 오류에는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또한 적지 않은데, 다음은 ‘소리대로’라는 음소적 표기보다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형태음소론적 표기법을 더 높은 비중으로 택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나타난 오류이다.

- (18) ㄱ. 저는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싶습니다). <초급>
 ㄴ. 두 분께서는 ***계속** 늘 바쁘십니다. <초급>
 한국 겨울에 눈과 담풍있도 ***에빠요**(에빠요). <중급>
 ㄷ. 내일 ***학교**(학교)에 꼭 갈게요. <중급>
 언제 ***보름달**(보름달)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고급>
 ㄹ. ***아프로**(앞으로) 주의할게요. <중급>
 경극을 안 보면 중국에 가지 ***아는**(않은) 것과 같습니다. <중급>

위의 예들 가운데 (18ㄱ)은 음절말 위치에서 수행된 /교/의 불파음화를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예이고, (18ㄴ)은 /j/ 탈락에 의한 단모음화를, (18ㄷ)은 경음화를 반영한 표기의 예라고 한다면, (18ㄹ)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적도록 하고 있는 분철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연철을 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의 예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류는 모두 ‘소리대로’ 적는 음소주의 표기를 택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할 수 있는바, 형태소의 원형을 최대한 밝혀 적도록 하고 있는 형태음소론적 표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

는 중간 단계에서 나타난 오류의 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어문 규정에 부합하는 표기를 위해서는 접미사의 교체 등과 같은 형태론적 지식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음은 부사 파생 접사 ‘-이/-히’의 교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나타난 오류의 예이다.

- (19) ㄱ. 나의 꿈은 *열심이(열심히) 공부해서요. <초급>
 매일 한국어를 *열심이(열심히) 할게요. <중급>
 세심한 데까지 *살뜰이(살뜰히)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급>
 ㄴ. 자신이 *깊히(깊이) 생각한 후에 성형수술을 통해서 <고급>

위의 예들은 접미사 ‘-이’나 ‘-히’로 파생된 부사의 끝 음절을 어떻게 구별하여 적느냐를 규정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 제51항의 규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19ㄱ)에서는 ‘-히’를 ‘-이’로, (19ㄴ)에서는 ‘-이’를 ‘-히’로 표기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띄어쓰기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나타난 오류의 예이다.

- (20) ㄱ. 경국은 중국 *전통문화 입니다. <중급>
 한국에 온 후에 제일 가고 싶은 여행점이 *제주도 입니다. <고급>
 시내는 다른 *때 보다 경치가 더 아름다웠어요. <중급>
 남성들이 어렸을 *때 부터 다 남자답게 되고 싶습니다. <고급>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합니다. <고급>
 ㄴ. 경국은 1840년경 북경에서 *형성 됐었습니다. <중급>
 ㄷ. 숙제는 꼭 완성하도록 *할 게요. <중급>
 그래서 오늘밤에 *할 게요. <중급>
 ㄹ. 4가지 역으로 *나 낼수 있습니다. <중급>
 저는 한국에 *온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요. <중급>

한국에 *오후에 제일 가고 싶은 여행점이 제주도 입니다. <고급>

위의 예들 가운데 (20ㄱ)은 앞말에 붙여 쓰도록 되어 있는 조사를 띄어 씀으로써, (20ㄴ)은 여기에 결합시켜야 할 접사를 띄어 씀으로써 발생한 오류이며, (20ㄷ)은 어미 ‘-게’를 분리하여 표기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모두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 경우에 띄어 씀으로써 나타난 오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면, (20ㄷ)은 앞말에 붙여 쓰지 않고 띄어 써야 할 의존 명사를 모두 붙여 쓴 데서 비롯된 오류의 예들이다.

이와 같은 띄어쓰기의 오류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언어적 사실이 확인되는데, 띄어쓰기의 단위가 단어라고 하는 사실⁸⁾과 관련, 중국인 학습자들이 단어의 정의, 곧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언어 형식에 대한 오류를 보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의 예들은 모두 최소 자립 형식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일종의 준자립형식에 해당하는 조사나 의존명사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오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요소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수·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IV.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와 교재 구성의 방향

2장에서의 논의대로 외국인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는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수법과 같은 학습 환경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다. 사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급선무는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정확하면서도 유창하게 목표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8) 주지하는 바와 같이,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로 ‘단어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학습자의 오류에 기초한 한국어 교재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들에서 편찬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에 반영된 맞춤법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교재의 구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성균관 대학교 어학원에서 2006년에 간행한 <배우기 쉬운 한국어> 제4권의 첫 번째 단원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맞춤법 교육과 관련하여 ‘숨은 실력 체크 포인트’라는 제목의 맞춤법 오류 문장 검토 활동에 뒤이어 ‘잠깐! 알아 두세요’라는 제목의 맞춤법 오류 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검토 및 수정 활동의 전제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잘못 쓰는 말’이라는 데 있다.⁹⁾

물론, 한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외국인 학습자들 역시 범하기 쉬운 오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이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간섭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목표어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중간언어의 성격을 띠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13)에서 검토한 바 있는 조사 표기의 오류는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의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이를 과잉 일반화하여 다른 격조사로도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중간 언어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는 모국어 학습자의 오류와 전혀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예측 가능한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9)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a. *니가(→네가) 어제 전화했니?
- b. 너 머리 *잘랐니(→잘랐니)?
- c. 어제 공부도 *하구(→하고) 텔레비전도 봤어요.
- d. 어제 백화점에 *들러서(→들러서) 옷을 사 왔다.
- e. 네가 똥똥하다고 해서 수연이가 *빼졌다(빼쳤다).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 체계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표기의 오류[예문 (4)~(7) 참조]와 관련해서는 두 언어의 대조 분석에 따른 언어적 사실과 함께 오류 수정 활동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조사 표기의 오류 같은 경우라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에 맞는 조사 사용 규범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재 내용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장에서 확인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맞춤법 오류는 그 양상에 있어 초급 학습자에서부터 고급 학습자에게 이르기까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은 학습자들의 오류가 초급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로 화석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화석화는 한국어 학습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학습 단계에 가장 알맞은 오류 수정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학습 계획 및 교재 구성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용 교재들에서 상당히 다양한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민현식 2000), 교재 자체가 오류를 조장하도록 구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8)의 예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이 조사나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에 비교적 많은 오류를 보인다는 사실과 관련, 한국어 교재들이 그러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 자체가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띄어쓰기 오류를 보인다는 사실(민현식 2000: 17)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오류를 지적하여 즉각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적

절히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학습자에게서 오류 없는 성과물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오류란 불가피한 요소로서 학습자가 끊임 없이 유추하고, 여타의 언어들에서 전이하고, 규칙들에 대한 가설들을 세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류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오류를 수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오류가 계속해서 등장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오류의 화석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맞춤법 차원에서 오류의 유형에 따라 오류 수정을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오류의 양상을 기술하고, 그러한 오류의 수정을 위한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 구성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류 분석 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에서 가정하고 있는 오류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연수생들이 보이는 맞춤법 오류의 양상을 주로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것과 목표어인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로는 음소 체계 및 음절 구조 등 발음에서 가능한 학습자의 오류가 고스란히 맞춤법의 오류로 반영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는 조사의 체계 및 용법에 대한 과잉 일반화,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규칙화 혹은 단순화, 어문 규정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등이 요인이 되어 오류가 나타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맞춤법의 오류 또한 단순히 일정한 어문 규정에 대한 학습자의 몰이해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언어 기능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모국어의 간접 또는 목표어인 한국어의 영향이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따라서 그러한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토대로 한 맞춤형 교수·학습과 함께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한국어 교재 구성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는 모국어 학습자의 오류와 전혀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예측 가능한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그러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류의 화석화를 막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석주 외(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김미옥(2001), 「맞춤법 오류에 관한 연구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언어교육연구원(연세대).
 김학수(1988),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 『영어영문학』 7-1, 한국 강원 영어영문학회, pp.71~89.
 민현식(2000), 「한국어 교육에서의 정서법 교육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11-1, 국제

- 한국어교육학회, pp.1~23.
- 박이도(1996), 『모국어습득과 외국어학습』, 한국문화사.
- 서혁(199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와 교재 구성의 방향」, 『선청어문』 20, pp.265~292.
- 왕단(200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한국어 발음 교재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6, 이중언어학회, pp.183~210.
- 이동은(2007), 「한국어 학습자의 철자 오류와 개선 방안-북미 지역 청소년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pp.335~362.
- 이소영(2003), 「한국어 학습자의 표기 오류 실태 연구: 영어권·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pp.255~282.
-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21~141.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이주행(2002), 「한국어의 발음 교육 방법—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pp.262~282.
-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pp.211~228.
- 조철현 외(2002, 4),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2002년도 국어 정책 공모 과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최영진 역(2007), 『외국어 학습자의 오류 다루기』, 한국문화사.
- 추이진단(2002),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pp.312~346.
- 추이진단(2004),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음 접근 방법」, 『한국학논집』 3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215~231.
- 한성우(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우리말글』 44, 우리말글학회, pp.165~194.
- Dulay, H., Burt, M. & Krashen, S.D.(1982), *Language Two*.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D.(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Corder(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5.

Corder(1974),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New Frontie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Dulay & Burt(1974), Errors and Strategie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vol. 8 No. 2.

Richard(1971), A Non-Contrastive Approach in Error Analysis, *English Language Teaching*, 25

Kleppin, K(1998), *Fehler und Fehlerkorrektur*, Goethe-Institut, München.

Abstract

A Study on the Errors in Orthography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Kang, Hui-suk

This study aims to describe aspects of errors in orthography found in the writing data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nd present desirable directions for Korean textbooks to modify such erro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spects of errors in orthography in terms of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interference from the first language and influences by Korean language, the target language, based on existing studies on the reasons for errors assumed in the error analysis hypothesis.

As a result, we found that for errors caused by interference from the first language, learners' potential errors in pronunciation such as phonemic systems and syllable structures appear as errors in orthography. It was also possible to identify those errors caused by Korean influences which occur due to excessive generalization in propositional systems and usage, routines or simplification in inflected words and incomplete understanding on Korean regulation.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was assumed that foreign learners' errors are totally different from native speakers' in content and quality. With such assumption, we present types of predictable errors and suggest that Korean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to help learners find their errors and revise them for themselves, and contribute to prevention against fossilization of errors.

Key words : Learners of Korean Language, orthography, errors, error revision, first language, intervention, target language, and fossilization

강희숙

조선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소 : (503-76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 1차 102동 1204호

전화번호 : 062-230-7316/010-9881-7316

전자우편 : hskang@chosun.ac.kr

이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6월 16일 게재 확정됨.